

국비 50%로…車 부품클러스터 본격 시동

광주시-정부 ‘총 사업비 3030억 중 국비 1431억’ 합의

광주시와 정부가 치열한 줄다기를 벌여 왔던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분담 비율이 확정되면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에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개정된 지침을 제시하며 국비 분담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광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사업 자질이 우려됐었다.

〈광주일보 2016년 10월19일자 1·3면〉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총 사업비 3030억원 중 국비와 시비 분담률을 5대 5에 가까운 1431억원과 1405억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가 제시한 국비 983억원(32%)과 시비 1883억원(62%) 분담률과 비교하

면 국비 부담은 448억원이 늘고 시비는 478억원이 줄었다. 국비가 32%에서 47%로 늘어난 셈이다. 민자사업비는 164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 국비와 시비 부담액 각 205억원과 85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기관이 조금씩 양보한 셈이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당시 분담비를 준수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 지침’을 들며 완강히 거부해 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윤 시장은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실무 부서까지 수시로 방문해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한 국비 추가

지원을 줄기차게 건의했고, 이 결과 사업비 분담 비율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사업은 빛그린산단에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과 연구기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SUV 및 플러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차량 경량화 및 생산기술 ▲전동화 및 융합전장기술 ▲특수목적용 고부가가치 부품 등 4대 특화분야다.

이밖에 종합기술지원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건립과 연구개발 비용, 장비구축 등도 추진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확보된 국비 30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올 초부터 기업 공용장비 구축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며, 기업지원시설인 기술지원센터와 비즈니스센터 시설개도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국적

으로 1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600억원의 부가가치, 1만1000명의 고용창출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역만을 놓고 볼 때 생산 7900억원, 부가가치 2300억원, 고용창출 7000여명의 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관련 업종의 유치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다”며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에 최선의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6기 핵심 프로젝트이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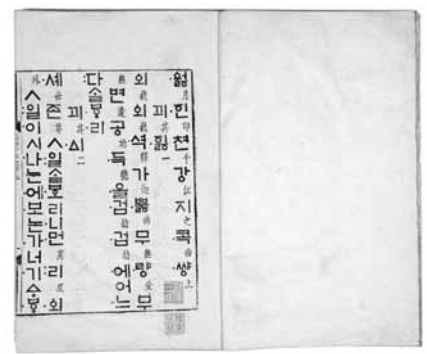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상의 신년 인사회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2017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건배를 하고 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유정환 광주시장과 우기중 전남도 정부부지사, 광주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해 올해 ‘도전과 혁신’, ‘창의와 융합’으로 미래 신산업 중추도시 광주를 구축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글활자본 ‘월인천강지곡 권상’ 국보 지정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도

훈민정음 창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글활자본 ‘월인천강지곡 권상’(사진)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3일 ‘월인천강지곡 권상’(月印千江之曲 卷上) 등 2건을 국보로,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국보 제320호로 지정된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이다. 비록 일부만 남아 있으나 한글 창제 후 초기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된다.

국보 제48-2호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右造菩薩坐像)은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구성하는 부속물 중 하나다.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자세 등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보물 제1618-2호로 지정된 ‘국새 황제지보’와 제1618-3호 ‘국새 유서지보’, 제1618-4호 ‘국새 준명지보’는 한국전쟁 중 미국으로 유출됐으며 2014년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방한(2014)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황제지보’는 고종이 1897년에 제작한 대한제국 국새이고, 1876년에 제작한 ‘유서지보’는 국왕의 명령서 ‘유서’에 사용했던 국새이며, 1889년에 제작한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 관원의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엄마가”…정유라 ‘모르쇠’

이대 입학·학사 비리 등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특혜 지원 등 모두 엄마에 미뤄…사전 공모한 듯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 딸 정유라(21) 씨는 앞으로 이어질 수사·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올보르 법원이 구금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시간 2일 연심리에 출석한 정 씨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최 씨와의 공모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 씨는 귀국하면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이나 재학 중 학사 비리 혐의에 관해 우선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어막 치기를 시도했다. ‘승마를 한 것은 엄마가 시켜서 한 것’이라는 언급에는 승마를 매개로 불법 입학했다는 의혹과 아예 거리를 두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5년 입신을 해서 학교에 못 갔고, 2016년에도 계속 못 나갔다. 엄마에게 자퇴를 요구했지만, 엄마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제대로 출석할 수 없으면서도 학교에 다녀야 했던 사정 역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출석 불량에도 학점이 좋게 나와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작년에 최 씨,

최경희 당시 총장, 류철균(명명 이인하) 교수 등 사이에 오간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일련의 의혹에 비춰 볼 때 이처럼 이례적인 행동이 최 씨와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고 사법당국이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정 씨는 삼성의 특혜 지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최 씨에게 미루는 전략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나는 6명 중의 한 명일 뿐이라고 들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이는 최 씨가 세운 독일 현지 법인 코레스포츠(비텍스포츠 전신)과 삼성전자가 맺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으로 혜택을 본 승마 선수가 자신뿐이라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씨의 이런 ‘모르쇠’ 주장은 특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는 증거나 다른 연루자의 진술에 따라 인정 여부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정 씨가 몇 달간 사실상 국외 도피 생활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피의 우려에도 불구속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특검팀 “정유라와 협상 없다”

“불구속 보장땀 자진 귀국” 주장 일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보장해주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 딸 정유라(21)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름의 개인 사정을 봐달라는 주장이지만 특검팀은 중대 사건 수사에서 특검인을 위한 특혜나 편의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거듭 확인했다.

정씨는 1일(현지시간) 덴마크 경찰에 전격 체포되고 나서 우리 정부 측에 불구속 수사 보장을 전제로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현지 법원에서 출석해서도 “보육원이든, 사회기관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 준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내가 한국에 가서 체포되면 19개월 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 씨의 불구속 보장 요구에 관해 3일 “정 씨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범죄 혐의자와) 협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팀은 정 씨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법이 규정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제도를 이용해 정 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정 씨가 그사이 자진 귀국을 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정 씨의 구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 4주간 연장된 상태다. 외교부는 정 씨에게 여권만 납병령을 내렸고 약 1주일 후 정 씨의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법무부는 2일 오후 7시께 외교부를 통해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를 덴마크 외교부로 발송했다.

/연합뉴스

本 社 人 事

▲김민석: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 기자 (1월 4일자)

▲이성구(동부취재본부 구례주재) 의원면직

▲박영진(서부취재본부 영광주재) 의원면직

〈2016년 12월 31일자〉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다셀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다셀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준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자진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벤트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홍나무뿌리 겹김)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부동산 토지 시장 전망 유망지역 분석 무료 대특강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한제시!!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 본관 208호
일 시	2017. 1. 4(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 (사전 예약)

*세미나 참석하신분은 1:1 투자상담사 상담료 무료

강의내용

- 1 전라남도 개발계획에 따른 실투자처 공개
- 2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모든것 한방에 끝내기
 - 1) 수익형부동산의 과학적 투자기치 분석법 공개
 - 2) 수익형부동산 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및 피해야 할 위험 분석
 - 3) 광주/전남 지역 최고의 입지와 매도/매수 타이밍 실투자 매물공개
 - 4)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물건별 분석 및 투자노하우 전수
- 3 국토개발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토지투자전략 대 공개
 - 1) 개발지 토지 소액투자로 수익내는 매물 찾기법 공개
 - 2) 돈이 되는 농지투자는 어떻게 투자하는걸까?
 - 3)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가치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완전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한) 영지부동산 대표
(한)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한)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한)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한)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한)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